

동화책 내는 시인 소설가 부쩍 늘다

‘아동문학작가에 의한 아동문학’ 벽 허물며 신선한 자극

파리손을 비비는 너
파리아.

뭘 잘못했니?
넌 무슨 죽을 죄를 졌니?

그러다
손바닥 다 닳을라, 꼭
손바닥이 다 닳아야 쓰겠니?

월간「현대시학」최근호에 실린 김춘수씨의 ‘신작동시’ 5편 가운데 하나인 「겨울 파리」 전문이다. “동시의 ‘童’자는 어디다가 아니라 순결하다, 때묻지 않았다고 새겨야 하리”라고 말하는 시인의, “어른의 복잡미묘한 심리를 잠시 떠나 단순소박한 아이의 심리로 돌아가고픈” 생각의 일단을 보여주는 시도여서 흥미롭거니와, 같은 책에는 이상의 유일한 창작동화로 알려진 「황소와 도깨비」가 또한 함께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잡지가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5월호’란 점은 물론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지만, 최근의 아동도서 출판경향을 볼 때 「현대시학」 편집자의 이같은 시도는 단순하고 의례적인 일과성 기획에 머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한 문학적 성가를 거두고 있는 시인·소설가들이 최근들어 대거 동화나 동시 창작에 뛰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참새 찌꾸」가 대표적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시인 광재구씨의 「아기참새 찌꾸」(국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한 문학적 성가를

올리고 있는 시인 소설가들이

최근들어 동화나 동시 창작에

뛰어 들고 있다.

아동문학작가들에 의한 아동문학의

고집스런 벽을 허무는 이같은

시도들은, 그동안 어린이독자들에게

거의 외면당해온 순수창작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민서관). 출판 한달여만에 대형서점 집계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진입한 이 책은 ‘초원의 개척자’란 뜻의 아기참새 ‘찌꾸’의 성장과정을 통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정신,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공동체적 사랑의 소중한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데, 특히 참새들과 사냥꾼과의 투쟁이나 폐수로 죽은 참새아버지 이야기 등으로 민주화와 공해 같은 우리의 현실 문제까지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언어구사에 있어서도 토박이말들이 적절하게 활용돼 종래의 ‘아동문학작가에 의한 아동문학’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책으로 평가된다.

「아기참새 찌꾸」를 펴낸 국민서관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어린이와 함께 보는 창작동화」 시리즈를 연이어 선보일 예정으로 있는데, 황지우 박완서 오정희 이경자 양귀자 김채원 천승세 송영 유순하 임철우 김영현 김남일씨

등 집필자들의 면면에서 보듯 아동문학작가 아닌 기성문인들의 신작동화만을 모은 기획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한편 서정주씨도, 순수한 창작은 아니지만, 세계 70여개국의 옛날이야기 160여편을 그 특유의 유장하고 친근한 구어체 문장 속에 풀어 쓴 「서정주 세계민화집」 전5권을 민음사를 통해 지난 1991년 상재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세계의 민화가 담고 있는 내용과 뜻에 따라 거짓과 참다움, 어리석음과 지혜, 태어남과 죽음, 욕심과 사랑, 용기와 희망편으로 나누어 「쑥국새 이야기」 「아프리카 꾀점양반들의 수수께끼」 「모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혼자 서만 다 먹어버리는 여자」 「개구리가 코끼리 딸과 결혼한 이야기」를 선보였다. 민음사에서 는 또한, 지난 1990년 김화영교수(고려대 불문과)의 책임편집으로 프랑스동화집 전 10권을 출간한데 이어, 최근 김우창교수(고려대 영문과)의 책임편집으로 영미동화 7권을 펴내며 문학평론가들을 아동도서 출판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어 주목을 끈다.

잡지로는 역시 민음사가 1990년 창간한 반년간 「민음동화」가 시인·소설가들에게 많은 지면을 제공해왔는데, 광재구씨의 「아기참새 찌꾸」도 원래는 「민음동화」에 발표됐던 작품. 통권 5호제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까지 정호승(석빙고, 침성대, 에밀레종) 김영승(밍키아저씨) 유흥종(엄마의 기적) 최성각(마늘도둑) 채희문(아빠와 그림나라) 고은(차령이의 생일잔치) 오정희(복숭아꽃) 유순하(아프기가 소원이던 돌이가 마침내 아프기 시작한 아침) 정현종(땀세상) 오규원(조그만 돌멩이 하

나) 양귀자(뽀뽀를 잊었나요) 원재길(영수의 직업여행) 등이 각각 동화와 동시를 발표했다.

덜 치열해도 무방한 ‘여기’는 아니다

최근의 이같은 경향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명작동화, 전래동화, 위인전 등으로 삼분되는 국내아동도서 시장에서 순수창작물의 거의 대부분이 아동들에게 외면당해온 게 저간의 사정”이라고 말하는 아동문학평론가 김용희씨는 “문학적 가치와 재미, 교육적 효율성을 가지면서도 아동의 현실과 정서에 맞는 창작동화의 출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기성문인들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아동문학과 성인문학이라는 장르의 구분이 거의 고착돼 있다시피 해 제올타리 속에서만 자족하던 우리나라 아동문학계를 위해서도 시인·소설가들의 동화창작은 신선한 자극과 발전을 위한 반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 동화나 동시창작의 견업에 나선 이들이 아동문학을 시나 소설에 비해 덜 치열해도 무방한 ‘여기’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를 위한답시고 무조건 쉽게 쓴다고 아동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화를 쓰기 전에 먼저 동심의 본질이나 동심세계의 문제를 파악해 아동문학의 본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한 아동문학작가의 말이다.

—강철주 기자

저희 편집부에서 함께 일할 두세 분을 찾습니다!

- 단행본 편집경험이 2~3년이상 있고,
- 영어, 일어 중 한 가지쯤은 가능하신 분...
- 그러나 무엇보다도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여, 좋은책을 신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을 환영합니다.

* 마감 일: 1992년 5월 16일(토) 까지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통
* 보내실 곳: (우)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청림출판 총무과
* 당일 우체국 소인은 유효하고, 결봉에 (입사서류) 명기 요망

청림출판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 546-4341 ~ 2, 8054 FAX : 546-8053

전세계 19개국 동시 출판!



지구를 구하자

SAVE THE EARTH 조나단 포리트 편저 / 조우석 옮김

지구환경정상회담(Earth Summit)에 즈음하여, 환경관련서 《지구를 구하자》한국어판 출간!

“혹시, 당신은 지금 ‘환경 시한폭탄’을 장전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최악의 경우인 ‘환경 위기’를 컬러사진을 동원하여 시각화시켜 보여 주고 있으며, 16명의 세계적인 과학자와 100명이 넘는 헌신적인 행동가·정치가·예술가·실업가·종교지도자들이 협력하여 그들의 소리를 모았다. 참여인사들은 공허한 말만으로 그치지 쉬운 우리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면서, 실제 조치를 취하도록 행동을 촉구하는 등 훼손된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아름다운 컬러사진을 동원하여 지구 곳곳의 모습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활상을 이 책에 낱말이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삶의 터전에 대한 심각한 진단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막중한 과제를 인계 주는 경고서입니다.
- *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환경유산!
- 환경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선물하세요. 사랑이 전해집니다.
- 서문 - 영국 찰스 황태자 ● 국외 기고자 - 137인/국내 기고자 - 10인
- 국내판/208면 ● 윌리엄스 ● 값 20,000원

청림출판